



身土不二의 科學文化

金鍾協

(동덕여대 총장)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진리〉 요즘 길거리를 다니면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대형 간판을 보게 된다. 주로 농협(農協)의 슬로건으로만 알고 있는데 차츰 이 말이 보급되고 있다. 사람의 신체는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특히 음식물의 원자재가 되는 농산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취지로, 어느 옛선비의 가르침으로 알고 있다. 「몸과 자연환경」은 둘이 아니다라는 지극히 옳은 말이다. 이 말은 어쩌면 영국의



유명한 찰스다윈의 진화론보다 더 위대한 진리이다. 찰스다윈은 동물의 진화를 자연환경 즉 기상, 온도, 지형, 생물간의 투쟁, 환경에 대한 적응 등에서 설명하였는데, 이 신토불이라는 말은 한술 더 떠서 음식물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과 가장 잘 어울린다는 말이다. 서양 속담에 술은 그 원료 이상으로 좋게 뽑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허물며 갖가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음식물의 원료에 크게 의존한다고 보아야겠다.

〈콩과 한국인〉 우리 한국인의 음식에서 된장, 고추장, 두부는 오랜 전통음식이요 하루 세끼 떠날 수 없는 필수식품이다. 콩은 단백질성 식품이며 식물성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 식품인 쇠고기, 생선보다 섭취량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쇠고기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쇠고기를 많이 먹으면 고혈압,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과 다중세균, 혈전증, 비대증 등이 생긴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쇠고기에 들어있는 지방분, 단백질,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쇠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사람이 콩을 많이 먹는 것은 우연의 일

치인지는 몰라도 꼭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조상이 생화학이나 단백질화학이나 영양화학에 밝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토 즉 자연조건이 축산보다는 콩재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우리 땅에서 콩농사가 잘 되니까 고기대신 콩을 많이 먹게 된 것뿐이다. 그러다보니 수천년간을 콩을 먹는 백성이 되었고, 이것이 곧 신토불이의 진리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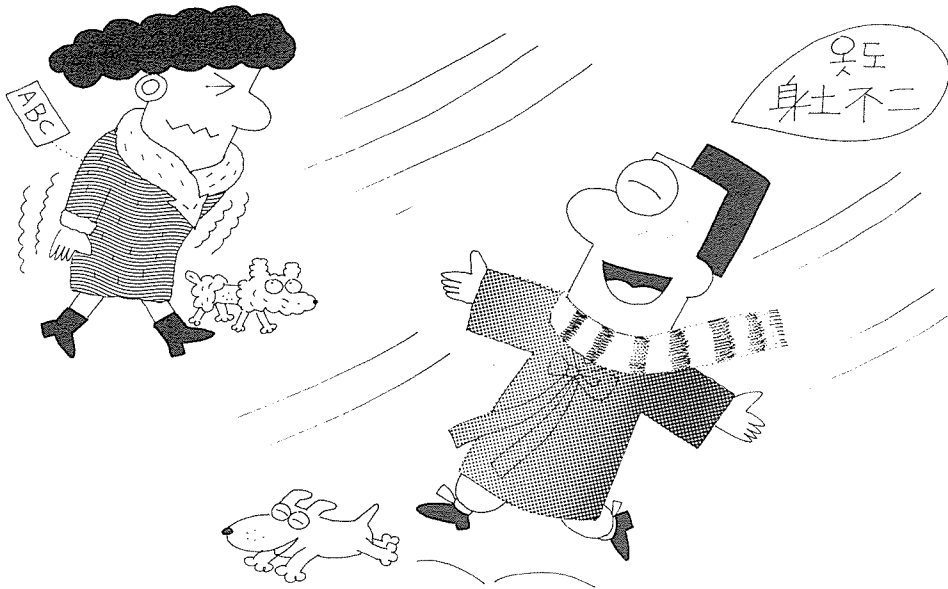
우리의 조상께서 고기가 싫어서 콩을 먹게 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근거로 고구려 사람들의 수렵도(그림)를 보면 알 것이다. 말을 타고 활을 쏘던 수렵 기마민족이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콩을 먹게 되었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산과 들에 있던 야생동물들을 다 잡아 먹어서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목축업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 한반도는 목축업에 부적당한 곳이기 때문이다. 목축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비가 장마철인 7~8월에 한꺼번에 쏟아지고 설상가상으로 목초와 흙마저 흩어 없앤다.

그리고는 겨울(10~3월)이 너무 길다. 겨울동안 먹일 사료가 없다. 가축이 겨울에는 얼어 죽고 굶어 죽는다. 그래서 쇠고기 먹는 것을 포기하고, 여름에는 보신탕, 겨울에는 뱀탕, 꿩구이, 새구이로 동물성 단백질을 즐겼다. 그런데, 요즘에는 쇠고기가 몸에 좋다고 하여 너무 많이 먹는 폐습까지 생겼으며, 수입고기다 또는 한우고기다 하여 시비를 벌이고 있는데 모두 웃기는 이야기들이다. 듣건데 한우도 종자는 대부분 외국소의 냉동정자를 가지고 번식시킨다고 한다. 또 사료는 어떤가? 대부분 수입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한우는 한국 물과 한국의 공

기만을 마신 것밖에 더 되겠는가?

쇠고기 값이 제일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쇠고기 중등급 한근은 대개 담배 2~3갑 값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열갑 값이다. 그리고 고혈압, 동맥경화증에 걸릴 위험성마저 안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로 신토불이의 진리는 신토(身土)가 아니라 신통하다.

〈햇바지와 한국인〉 국어사전을 보면 햇바지는 솜을 두어 지은 바지, (속)시골사람,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적혀 있다. 요즘 그 무슨 가죽털옷을 무스탕이니 토스카나니 하여 외제는 1백만원대, 국산은 50만원대니 하여 백화점에서 팔고 있



다. 최근 한국 남녀들은 이것을 입고 목에 힘주어 다니면서 돈 많은 것을 자랑한다. 국산도 역시 원자재는 외국산이다. 그런데 하반신쪽을 보면 남자는 얇은 양복바지에다가 얇은 양말과 가죽 단화를 신고 있다. 여성은 한술 더 떠서 미니스커트에 검정 나일론 스타킹에다 하이힐 차림이다.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아랫도리가 추우니까 덜덜 떨고 있다. 1백만원짜리 무스탕 입고 떨 바에야 차라리 햇바지를 입고 핫저고리에 핫두루마기를 입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해본다. 그러면 첫째, 외화 절약 둘째, 활동성 보장(무스탕은 무겁고 딱딱해서 작업을 못한다) 셋째, 가벼워서 신체골격과 근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니 건강에 좋다. 인구가 12억이나 되는 중국사람이나 부자나라인 구라화사람들도 모두 솜을 두어 누빈 잠바와 바지를 입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야단들인가? 우리 조상

들께서 목화씨를 몰래 붓통속에 숨겨 넣어 요령 좋게 밀수입하여 퍼트린 것이 목화문화가 아니겠는가? 목화재배도 이제는 다 포기하고 수입목화 아니면 수입가죽으로 잠바를 만들어 입으니, 이게 무슨 꼴인가?

화장실도 그렇다. 수세식 변기가 겨울에 동파되지 않도록 중등산 석유로 사람이 집에 있거나 없거나간에 마구 보일러를 돌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얼어 터졌다 하면 수십만원의 수리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때 슬라브식 지붕이 유행했을 때, 겨울에 그 지붕이 얼어서 서리가 끼고, 천정에서 곰팡이 녹은 물이 방바닥에 똑똑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다. 사람들

은 찬 방구석에 움추리고 앉아서 추위에 떨고 있는 꼴을 본 일이 있다. 슬라브식 지붕은 아열대지대인 미국의 L.A나 지중해 연안 지방의 건축양식이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건축양식이다. 수세식 변기도 겨울에 영상을 기록하는 구라파 남부와 영국의 런던에서 개발된 것이다.

옷이나 집이나 부엌이나 화장실이나 다 자기들이 사는 지방의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를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토불이문화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햇바지꾼이 어리석은 자의 집단 명칭이 아니라 신토불이문화의 침병인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맺는 말〉 요즘 우루과이라운드다 국제경쟁력 제고다 등등 세상이 시끄럽다. 민족이란 단어의 뜻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들(의식구조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을 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한다. 민족문화라고 할 때는 같은 말,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옷을 해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양식의 집에 살면서 자연(土地)을 활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유형무형의 가치창조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의 한국문화, 한국의 과학기술은 서양, 미국, 중동, 중국, 인도의 수입문화 수입과학의 무질서한 전시문화가 아닐까 걱정된다. 무언가 우리 것을 찾고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